

1. 미국 식민지 역사와 식민지 문학

1) 미국 식민지 역사와 청교도

유럽인에 의한 미국의 역사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로부터 시작된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은 신대륙이 유럽의 역사에 편입되는 사건이었다. 이후 신대륙의 주인의 유럽의 판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스페인의 지배가 우세했으나 1588년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해양권을 장악하자 자연스럽게 신대륙에 대한 식민활동이나 지배력도 영국으로 기울게 되었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고 뒤를 이어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스튜어트(Stuart) 왕조가 시작되었다. 1607년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존 스미스(John Smith, 1580-1631)가 버지니아 주에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Jamestown)이란 최초의 영국식민지를 건설했다. 이후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서서히 영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었다. 초기에는 인디언들과의 교역이나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이들은 문학적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문학 혹은 최소한 문자를 통한 정신적 활동이 시작된 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종교적 이상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102명의 청교도들(Puritans)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퓨리탄”이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은 1559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일령을 따르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칼뱅주의에 의거한 신교를 믿었다.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 때부터 시작된 비국교도에 대한 탄압을 피해 영국을 벗어나고자 했다. 일부는 칼뱅신교주의가 행해졌던 네덜란드로 가기도 했고, 또 일부는 종교적 이상향을 꿈꾸며 신대륙으로 가고자 했다.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간 최초의 청교도들이었다.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들은 1620년 12월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다. 이들 플리머스의 청교도들은 종교라는 정신적 활동의 자유를 갈구하여 신세계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도착은 자연스럽게 종교와 관련된 문학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은 미국 식민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서약식을 함으로써 문학 혹은 문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배안에서 메이플라워협약을 만들었는데, (a) 영국 왕에 충성하고, (b)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c) 자치사회를 만들어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d)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 지킬 것을 맹세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이들 청교도들의 반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주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재배를 시작해 첫 수확을 한 것을 기념한 행사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의 기원이 되었다.

2) 식민지 문학

초기 미국 식민지 시대는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미국 식민지의 청교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시기를 언급하는데 청교도라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논하기가 어렵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문같은 형태가 초기 식민지 문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식민지가 점차 정

착되면서 영국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그 중에는 교육받은 중산층들도 점차 늘어났다. 미국 식민지로 이주해 온 이들 교육받은 중산층들은 주로 청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식민지의 전혀 새로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에 놀라면서 자신의 청교도적 열정을 고수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1) 앤 브래드스트리트(Anne Bradstreet, 1612-1672)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영국 귀족이면서 매사추세츠 식민지 장관을 지낸 토마스 더들리(Thomas Dudley)의 딸로 태어났다. 16세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청교도 사이몬 브래드스트리트와 결혼했고, 18세에 남편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에 정착을 했다. 독실한 청교도 여성으로서 신세계에서 살면서 느끼는 종교적인 경건함과 생활 속의 신앙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로써 표현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또 영국 르네상스기의 시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녀의 시는 식민지 생활의 단순함과 학문적 논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1650년 영국에서 그녀의 첫 시집 『최근 미국에서 솟아난 10번째 뮤즈』(*The Tenth Muse Lately Sprung in America*, 1650)라는 시집을 출판해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류시인이라는 평이 있지만 그녀가 활동한 시기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이전이라 이에 대한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녀가 식민지에서 활동하면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생산하고 현재까지 그 작품이 남아 있는 최초의 여류 시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

If ever two were one, then surely we.
If ever man were loved by wife, then thee;
If ever wife was happy in a man,
Compare with me ye women if you can.
I prize thy love more than whole mines of gold,
Or all the riches that the East doth hold.
My love is such that rivers cannot quench,
Nor ought but love from thee give recompense.
Thy love is such i can no way repay;
The heavens reward thee manifold, i pray.
Then while we live, in love let's so persevere,
That when we live no more we may live ever.

(2) 에드워드 테일러(Edward Taylor, 1645-1729)

에드워드 테일러는 영국에서 출생했지만 영국 국교를 반대하는 청교도였기 때문에 그는 영국에서 종교와 학문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이후에는 목사로서 활동했다. 테일러의 시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 발표하지 않

왔는데, 20세기 초반에 그의 시가 예일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되면서 그의 시가 미국문학계에 알려졌다. 1939년 토마스 존슨(Thomas Johnson)이 테일러의 시를 편집해서 『에드워드 테일러 시집』(*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 1939)를 발간했다.

에드워드 테일러의 시는 그의 개인적인 아픔과 종교적 비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학식과 명상을 통해 그러한 내용들이 형이상학으로 표현되어 있다. 에드워드 테일러는 많은 자식들의 상실을 경험했는데, 그의 첫 번째 결혼에서 그는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테일러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그 슬픔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철학적 명상을 시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그의 시는 기교면에선 존 단(John Donne)을, 내용면에서 존 밀턴(John Milton)을 닮아 있다. 명상적이고, 신비적이며, 때론 난해한 그의 시는 당시의 식민지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드워드 테일러는 식민지 시대 아메리카의 최고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Upon a Spider Catching a Fly

Thou sorrow, venom Elfe:
Is this thy play,
To spin a web out of thyselfe
To Catch a Fly?
For Why?

I saw a pettish wasp
Fall foule therein:
Whom yet thy Whorle pins did not clasp
Lest he should fling
His sting.

But as affraid, remote
Didst stand hereat,
And with thy little fingers stroke
And gently tap
His back.

Thus gently him didst treat
Lest he should pet,
And in a froppish, aspish heate
Should greatly fret
Thy net.

Whereas the silly Fly,
Caught by its leg

Thou by the throate tookst hastily
And 'hinde the head
Bite Dead.

This goes to pot, that not
Nature doth call.
Strive not above what strength hath got,
Lest in the brawle
Thou fall.

This Frey seems thus to us.
Hells Spider gets
His intrails spun to whip Cords thus
And wove to nets
And sets.

To tangle Adams race
In's stratigems
To their Destructions, spoil'd, made base
By venom things,
Damn'd Sins.

But mighty, Gracious Lord
Communicate
Thy Grace to breake the Cord, afford
Us Glorys Gate
And State.

We'l Nightingaile sing like
When perchd on high
In Glories Cage, thy glory, bright,
And thankfully,
For joy.